

韓 자동차 ‘수출·내수·생산’ 삼중고… 산업·지역경제 ‘비상’

산업부 ‘지난달 자동차산업 동향’ 수출액 58.3억弗… 전월비 5.9% ↓ 내수판매·생산 각각 10.3%·8.2% ↓ 해상운임 증가·美 관세 부과 영향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현대차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자동차산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동 분쟁 장기화에 따른 물류 차질과 중국차 수출 감소, 미국의 관세 장벽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수출, 내수, 생산이 동시에 고꾸라지는 ‘삼중고’에 직면했다. 완성차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철강, 석유화학, 부품 등 연관 산업 전반과 지역 고용시장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 5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58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9% 감소했다. 같은 기간 내수 판매(12만 7315대)와 생산(32만 9599대) 역시 각각 10.3%, 8.2% 줄어들며 완연한 하락세를 보였다.

올해 5월까지 누계 수출액은 292억 4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다. 누계 내수 판매는 1.0% 소폭 늘었으나, 생산은 2.3% 줄었다.

지역별로는 주력 시장인 북미와 유럽에서의 타격이 컸다. 최대 시장인 미국 수출액이 24억 4300만 달러로 2.9% 감소한 것을 비롯해 북미 전체가 1.0% 줄었다. 이외에도 유럽연합(EU) -6.5%, 기타 유럽

-13.7%, 아시아 -37.3%, 중동 -4.2%, 중남미 -3.6% 등 오세아니아(20.1%)와 아프리카(16.9%)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출이 일제히 후퇴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수출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차츰 해상운임’과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현지 생산 전환’을 꼽는다. 지난 12일 기준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2985.22를 기록했다. 중동 분쟁

본격화 전인 2월 27일(1333.11)과 비교하면 불과 수개월 만에 2배 이상 폭등한 수치다. 해상운임 상승은 수출 채산성 악화로 직결됐고, 결국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수출 물량을 조절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 장벽도 한국산 자동차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올해 5월 누적 대미 자동차 수출은 125억 3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8% 감소했다.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국내 생산 대신 미국 현지 공장 생산을 늘리면서 국내 수출 물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든 탓이다. 이러면서 올해 자동차 시장의 역성장 전망까지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자동차산업의 부진이 국내 제조·산업계 전반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자동차는 수천 개의 협력업체와 철강, 석화 등 후방 산업을 견인하는 파급력이 큰 산업이기 때문이다.

당장 완성차 생산이 줄어들면 수천 개 부품 협력사들의 발주량이 감소해 경영 악화로 이어진다. 이미 건설 경기 침체로

후판과 철근 수요 부진을 겪고 있는 철강업계 역시 자동차용 강판 수요까지 줄어들면 시면초가에 빠질 수 있다. 범퍼와 내장재 등의 원료를 공급하는 석유화학 업계와 고무·유리·전장부품 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생산 감소가 장기화되면 고용시장과 지방 경제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신규 채용 축소와 투자 지연은 물론,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특정 지역의 경제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철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관세의 영향으로 자동차 업체가 출고 가격을 낮추어야 하므로 부품 업체들에 대한 단가 인하 요구가 더 강해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품이든 완성차든 국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 방식 혁신이 요구되며, 안정적인 노사관계, 각종 생산 여건 등의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고 제언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대리점에 채무이행 의무 부담’ 행위 적발

공정위, 두산밥캣코리아 시정명령 대리점에 연대보증 입보 등 요구 소비자 대금 미지급 시 대리점 부담

지게차 등 건설·산업장비를 제조·판매하는 두산밥캣코리아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들에게 과도한 담보를 요구하고 채권 미회수 위험을 전가하다가 규제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밥캣코리아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채권 미회수 위험을 대리점에게 전가할 목적으로 과도한 물적 담보 및 연대보증의 제공을 요구하고, 상품 대금에 대해 대리점이 이행담보책임을 부담토록 하면서 미회수 상품 대금과 대리점의 수수료를 상계할 수 있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산밥캣코리아는 대리점의 채무 이행 담보를 위해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 연간 상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물적 담보를 제공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보 제공액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추가로 대리점의 제3자를 물상보증인으로서 연대보증토록 하고 연대보증인의 입보도 요구했다.

또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대리점이 미지급 대금을 부담토록 하고 미지급된 상품 대금을 대리점이 두산밥캣코리아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와 상계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기도 했다. 본사가 짊어줘야 할 고객의 채무 불이행 위험을 고스란히 대리점에 떠넘긴 셈이다.

다만 두산밥캣코리아가 대리점에 대해 실제 담보를 실행하거나, 고객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대리점에 판매수수료의 지

급을 실제 유보·상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두산밥캣코리아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대리점에게 연대보증인 입보 요구 및 물상보증인 연대보증 제공 요구 행위를 중단했으며, 상품 대금에 대한 이행담보책임 및 수수료 상계 조항을 계약서에서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게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 소비자의 채무이행 의무를 부담토록 하는 불이익한 거래 조건을 설정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코트라·경남도, 북미 ‘에너지·전력’ 공략

美·캐나다, AI 확산에 전력 수요 급증 북미 수출 로드쇼에 中企 10개사 참여

인공지능(AI) 열풍으로 북미 지역의 전력·에너지 인프라 확충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 지역 특화 기업들이 미국과 캐나다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섰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와 경상남도는 지난 6월 15일부터 경남도 내 중소기업 10개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참여한 ‘경남 에너지·전력 기자재 북미 수출 로드쇼’를 미국 휴스턴과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남은 두산에너지빌리티, 효성중공업 등 대기업 협력사를 비롯해 전력·에너지 분야 중소기업들이 밀집한 지역이다. 이번 로드쇼는 북미 시장의 전례 없는 수요를 겨냥해 지역 기업들의 수출을 직접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우리 측에서는 발전소

용 크레인, 펌프 모듈, 방폭 케이블, 터빈 블레이드 등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에너지·전력 전문 기자재 및 설비 기업 10개사가 참가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는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증설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력망 현대화와 에너지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미국 에너지부(DOE)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027년부터 4년간 국가 전력망 현대화에만 19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사상 최대 규모의 전력망 투자가 이어지면서 관련 기자재 수요도 함께 치솟고 있다.

캐나다 정부 역시 국가 전력망을 현재의 두 배로 확충하고, 2050년까지 140~190GW 규모의 추가 저탄소 발전설비를 증설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원전을 포함한 발전, 송배전 분야에서 양국 정부 및 기업 간의 협력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

발하다.

이러한 수요에 맞춰 지난 6월 16일부터 이틀간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에너지 종합 전시컨퍼런스 ‘에너지 프로젝트 엑스포(EPCSHOW)’에서는 한국관이 운영됐다. 올해 행사에는 벡텔(Bechtel), 플루오르(Fluor), GE 등 글로벌 에너지 공룡 기업들에서 7000여 명이 참가했다. 우리 기업 10개사는 코트라가 사전 발굴한 바이어를 포함해 한국관을 찾은 400여 개사와 밀도 높은 수출 상담을 진행했으며, 한수원도 현장에서 K-원전 기술을 적극 홍보하며 중소기업들의 든든한 우군 역할을 했다.

이어 6월 19일 캐나다 토론토 크라운플라자에서 열린 수출상담회에서는 Hatch, Candu Energy, EBMLaser, Westlund 등 현지 유력 에너지 전문기업들이 대거 참석했다. 우리 기업들은 사전 주선된 B2B 상담과 함께 캐나다 EPC 및 원전 산업 기회 설명회, 오픈 네트워킹 세션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폐지 석탄화력발전소, 차세대 SMR로 전환

한국남동발전-현대건설 ‘맞손’ ‘리트로핏’ 개발, 실증·사업화 모색

한국남동발전이 현대건설과 손잡고 단계적 폐지가 예정된 석탄화력발전소를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로 전환하는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남동발전은 지난 19일 현대건설 본사에서 이영기 안전기술부사장과 최영 현대건설 전무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석탄발전 연계 SMR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화력발전소 내 핵심 설비인 석탄보일러를 무탄소 전원인 SMR로 교체해 기존 발전 인프라를 재활용하는 ‘리트로핏(Retrofit)’ 기술 개발이 골자다. 리트로핏은 기존 노후 설비에 신기술을 접목해 성능과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전력량 등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이영기 남동발전 안전기술부사장(왼쪽)과 최영 현대건설 전무가 지난 19일 ‘석탄발전 연계 SMR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남동발전

활용할 수 있어 경제성이 높은 대안으로 꼽힌다.

양사는 리트로핏방식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공동 검토하고, 향후 차세대 무탄소 전원 기반의 종합 에너지 플랜트 모델을 구체화해 실증 및 사업화 가능성까지 모색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필리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발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필리핀 카마리네스수르 주와 협력체계 구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필리핀과 환경인프라 조성 및 온실가스 감축 부문 등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한다.

21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 15일 필리핀 카마리네스수르 주와 ‘신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발굴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의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공동 추진 ▲기존 매립장 사후관리 협력 ▲신규 매립장 조성 관련 기술 협력 ▲폐기물 관리 체계개선 및 환경인프라 현대화 ▲신규 환경 분야 협력사업 발굴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필리핀 지방정부와의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공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양 기관은 카마리네스수르 주의 기존 매립장 사후관리 및 신규 매립장 건설 예정 사업에 대한 협력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또 향후 협력 관계를 공고히 다져 나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측의 협력은 지난 5월 카마리네스수르 주지사 및 의회 의원들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현장 방문 및 상호 협의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특히 공사가 보유한 폐기물 처리 및 매립장 운영·관리 기술력에 대해 현지 정부가 높은 관심을 보이며 협력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송병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지난 15일 필리핀 루스 마니고스 타완타완 차관보 등 환경당국 관계자를 만나 공사의 기술지원 및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16일에는 카마리네스수르 주 매립 현장을 직접 방문해 매립장 운영 현황과 폐기물 반입 특성 등을 점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